

보건복지부, 대형병원 의료제품 사재기 금지 요청

- 보건복지부 제2차관, 대한병원협회와 「의료제품 안정공급을 위한 간담회」 -
- 대형병원 등의 가수요로 인한 의료제품 비축 방지 당부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4월 9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병원협회와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제품 안정공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및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원섭 충북대병원장,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 박진식 부천세종병원장 등 병원협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한 병원의 의료제품 수급 현황과 애로 사항 및 정부와 병원협회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동전쟁으로 일부 대형병원 등에서 의료제품의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병원, 의원은 인터넷 구매 사이트의 물품 품질로 주사기 등 필수제품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병원협회 차원에서 회원 병원들이 의료제품의 재고를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일부 병원의 가수요로 인한 물량확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병원협회 차원에서 대응팀을 운영 중이다”라며 “불필요한 물량 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제품 안정공급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실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044-202-2470)
		담당자	사무관	강석원 (044-202-2484)



- (일시) '26. 4. 9.(목), 10:00
- (장소) 코엑스(서울 강남구)
- (참석자)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의료기관정책과장
 -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임원진 15명
- (주요 내용) 병원의 의료제품 수급 현황과 애로사항, 정부와 병원 협회의 대응 방안 등